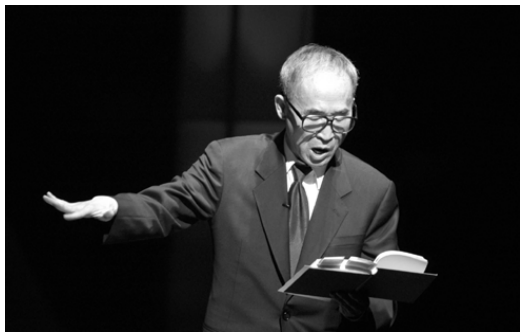
고은의 시, 무대예술과 만나다


고은 시인

목련꽃이 살포시 피어나는 3월의 어느 날, 꽃만큼이나 아름다운 시와 무대예술이 만났다.
지난 3월 24일, 대학로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린 〈사람과 사람들〉은 고은 시인의 시가 단순한 텍스트에서 국악, 춤, 연극 등 여러 예술장르로 살아나는 무대였다.
가수 이은미의 사회로 진행된 이 행사는 고은 시인의 대표작 「나그네」, 「자작나무 숲으로 가서」, 「문의 마을에 가서」 등을 연극인 오지혜와 영화인 문성근, 그리고 고은 시인이 직접 낭송하였고, 명창 안숙선은 창으로써 시를 표현하였으며, 현대무용가 박호빈이 '화살'을 모티브로 멋진 춤을 선보였다.
또한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머슴 대길이」, 「선제리 아낙네들」을 무대에 올렸다. 이 무대에는 이윤택이 이끈 연희단거리패 단원과 춤꾼 하용부가 함께 수많은 인간군상을 시극으로 표현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예동어린이합창단의 두 어린이가 고은이 작사한 동요 「등대지기」를 불렀고 김민기 작사의 「아름다운 사람」은 어린이합창단의 고운 목소리를 통해 예술극장에 울려 퍼졌다. 사진작가 최민식의 작품들이 영상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이은미가 「세노야」를 열창하기도 했다.
단순히 시낭송의 행사만이 아닌 여러 예술 장르의 새로운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던 이번 무대는 고은 시인 개인적으로도 큰 무대였지만 그 안에서 함께 참여한 예술인들이나 관객 모두에게도 신선한 행사였다. 앞으로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지표가 될 만한 무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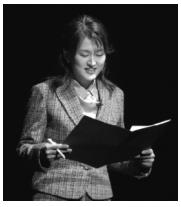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린 〈사람과 사람들〉 행사장면들

연희단거리패

춤꾼 하용부

현대무용가 박호빈

예동어린이합창단


연극인 오지혜

사회를 맡은 이은미

명창 안숙선

영화인 문성근

제9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건축전 한국관 전시기획 및 참가작가 선정발표

'건축과 도시의 질문'을 남겨 놓을 한국관 기획

정기용, 제9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건축전 한국관 커미셔너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3월 24일에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제9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건축전에 참가할 작가와 작품을 발표하였다.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은 1980년 1회를 시작으로 2002년까지 8회를 개최하였고, 우리나라는 제6회인 1996년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2004년 제9회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의 주제는 '변용(metamorphose)' 이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전후의 상황으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내포된 잠재력에 이르기까지 건축의 진화에 있어서 그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낸 깊은 흔적으로써의 문화적, 기술적, 비평적 변화를 포괄한다는 내용으로 함축할 수 있다. 각 나라들은 이런 주제와 유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특별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이게 될 것이다.
한국관의 주제는 '방의 도시' 로, 이는 건축의 전통적 역할을 넘어 문화 경험의 촉매역할을 제시하는 베니스비엔날레 전체 주제 "메타모포시스"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한국관 커미셔너 정기용(기용건축 대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 '방의 도시' 는 건축가의 완성된 작품을 전시한 기존의 전시방법을 탈피하고, 3인의 젊은 건축가가 공동으로 방의 현상을 분석, 해석하고, 이를 통하여 현대건축가가 직면한 도시 건축의 문제와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고 기획의도를 설명하였다. 한편 전시는 노래방, 비디오방, 찜질방, 온라인 대화방 등 여러 방이 생기고 확산되는 한국의 상황을 공동작업을 통해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의 도시' 라는 주제는 작가 선정에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을 제시하였고,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야만 했다. 선정된 참여 작가는 김광수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송재호 한양대 건축과 겸임교수, 유석연 홍익대 건축대학 초빙교수로 정기용 커미셔너와 함께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워크샵을 갖고 이를 토대로 전시관 계획, 인쇄물 작성에 이르기까지 공동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제9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건축전에서 한국관은 '건축과 도시의 질문' 을 던져 놓게 될 것이다.

금요일, 문학을 이야기하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오는 4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3개월간, 「은빛 호각」의 이시영 시인이 진행하는 〈금요일의 문학이야기〉 2004년도 제1기 강좌를 개설.
2000년도부터 시작된 〈금요일의 문학이야기〉는 그간 우리 문단을 대표하는 200여 명의 명사들을 모시고 이들의 생생한 체험 속에 묻어나는 우리 문학의 다양한 경관 속을 청중들과 함께 거닐어 보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새 봄과 함께 시작되는 금번 2004년 1기 강좌는, 우리 시대의 시적 정서를 대표하는 시집 10권을 선정하여 저자와 함께 읽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하였다. 나희덕, 최영철, 장철문, 박형준, 박영근, 정규화, 김행숙, 안도현, 전동균 시인 등이 초청되어 자신의 시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신경림 시인과 평론가 염무웅 교수도 만나 볼 수 있다.
〈금요일의 문학이야기〉는 금요일 저녁 7시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3층 상설예술강좌실에서 개최된다.

자세한 내용은 본원 홈페이지(www.kcaf.or.kr) 를 참고하시거나 본원 문학전문위원 (TEL : 02-760-45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25년을 찾습니다

2004년 5월 21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이 개관 25주년을 맞이한다.
마로니에미술관은 1974년 3월 당시 종로구 관훈동의 구 덕수병원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1979년 5월 현 위치인 동숭동 마로니에공원 내 별도의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미술회관으로 개관한 이래 2002년 3월 마로니에미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004년 5월 개관 2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마로니에미술관은 개관 25주년을 맞아 변화하는 미술문화 환경에 부응하고 미술관 운영의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시각문화의 중심으로 실험성을 지닌 복합미술지원센터〉로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다지고자 전시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체제를 일신하였다. 마로니에미술관의 활력과 역동성을 느껴 보실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로니에미술관은 개관 25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마로니에미술관 25년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각종

1974. 3.22일 개관한 구 미술회관(관훈동 소재)

현재의 마로니에미술관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소장하고 계신 자료 중 우리 미술계의 현장과 같이 해 온 지난 25년간 마로니에미술관의 모습을 정리하고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를 기증(또는 대여)하여 주시면 소중하게 정리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로니에미술관 25년 역사와 함께 했던 도록, 포스터, 전단, 입장권, 사진, 보도자료(신문, 방송 등) 등 모든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자료든 저희에게는 소중한 사료가 됩니다. 자료 기증에 참여하여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마로니에미술관 『명예의 현판』에 남겨 감사의 마음을 오래도록 전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기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마로니에미술관을 직접 찾아 주시거나 우편으로 우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분량이 많은 경우 저희가 직접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미술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받는 곳 : 우편번호 110-76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130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 문의 · 안내 : 전화 02-7604-603 / 이메일 leeuni@kcaf.or.kr